



한국도서관협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 02-535-4868 전송 : 02-535-5616
http://www.kla.kr e-mail : w3master@kla.kr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 Banpodae-ro, Seocho-Gu, Seoul, 06579, KOREA
TEL : +82-2-535-4868 FAX : +82-2-535-5616
http://www.kla.kr e-mail : w3master@kla.kr

수신자 한국도서관협회 회원 제위

(경유)

제 목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 세미나 개최 안내

1.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도서관협회는 최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교양교육과 인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해보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전국 도서관인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음]

가. 세미나 개요

- 세미나명 :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
-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14:00~16:30 [150분]
- 장 소 :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관정관 3층 양두석홀
- 대 상 : 약 100명(도서관 관장과 사서, 대학생, 대학원생 등 누구나)
- 주최·주관 : 한국도서관협회

나. 내용

- <기조강연>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서경식 교수)
- <좌담회> 서경식 교수와의 좌담
 - 진행 :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 학계 : 정진수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대학 : 정재영 서강대학교로올라도서관 팀장
 - 공공 : 이정수 서울도서관 관장

다. 신청 방법

- 신청 :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www.kla.kr) <http://naver.me/x5heZryX>
- 신청 기간 : 2019.3.8.(금) ~ 2019.3.18.(월)까지

라. 문 의 : 기획정책본부 출판홍보팀(전화 02-535-4481, 이메일 dajjeong@kla.kr)

첨 부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 세미나 안내 1부. 끝.

한국도서관협회장



기획정책본부/출판홍보팀장 전다정 본부장 심효정 사무총장 이용훈 회장 이상복

협조자

시행 도협-20190308-0002(2019.03.08.)

접수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 www.kla.kr

전화 (02) 535-4481 전송 (02) 535-5616

/ dajjeong@kla.kr / 공개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 세미나 안내

□ 목 적

- 현재 일본에서 당면한 대학도서관의 문제와 고민, 이슈를 들어보고 이와 연계해 현대사회에서 왜 ‘교양’이 필요한지 교양교육의 의미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함.
- 또한 ‘도서관적 시간’을 회복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한국 도서관의 현실에 대입해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 개 요

- 세미나명 :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 세미나
-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14:00~16:30 [150분]
- 장 소 :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관정관 3층 양두석홀
- 주최·주관 : 한국도서관협회
- 참석대상 : 대학 및 공공도서관 관장과 사서, 대학생, 대학원생 등 1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naver.me/x5heZryX>
- 문의사항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정책본부 출판홍보팀(02-535-4481, dajjeong@kla.kr)

□ 내 용

- 서경식 교수의 기초강연과 좌담회 진행
 - 강연주제 :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 (20분)
 - 좌담 : 서경식 교수와 학계 및 도서관 현장 사서로 구성된 패널간 상호 대화 (60분)

□ 진행일정

시간	내용
14:00~14:10(10')	<인사말> - 서이종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관장
14:10~14:30(20')	<기초강연>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 - 서경식 교수(도쿄게이샤이대학도서관 관장)
14:30~15:30(60')	<좌담회> 서경식 교수와의 좌담 * 진행 :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 학계 : 정진수 교수(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대학 : 정재영 팀장(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 공공 : 이정수 관장(서울도서관 관장)
15:30~16:00(30')	<질의응답>
16:00~16:30(30')	<도서관 견학>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시간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자료집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도서관문화》 1·2월호에 <기초강연>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시어 그 전문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 찾아 오시는 길

○ 주 소: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62동)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버스)

5513(대학본부 방향)	5513은 서울대정문 통과후 4번 정류소 하차
5511(경영대 방향)	5511번은 서울대정문 통과후 14번 정류소 하차

(하차 후) ⇒ 62동 중앙도서관 (도보 약 7~8분 소요)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서울대학교 셔틀)

·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전용 정류소에서 셔틀버스 탑승 ⇒ 대학본부(행정관) 앞 하차 (약 10분소요) ⇒ 대학본부 (60동) 뒤 62동 중앙도서관 (도보 약 5분 소요)

- 지하철 2호선 **신림역 3번** 출구(버스)

· 5516번 초록색 지선버스 탑승 ⇒ 대학본부 앞 4-1번 정류소 하차 (약 20분 소요) ⇒ 대학본부 (60동) 뒤 62동 중앙도서관 (도보 약 5분 소요)

-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마을버스)

· 관악 02 마을버스 탑승 ⇒ 노천강당 앞 하차 (약 10분 소요) ⇒ 자연과학대학(20,21동) 앞 62동 중앙도서관(도보 약 5분 소요)

○ 승용차

- 정문 진입 시 : 약 250m 전방의 **G4 게이트**에서 좌회전 ⇒ 중앙도서관

- 후문(낙성대 방향) 진입 시 : 기숙사를 지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G7 게이트**로 진입 ⇒ 중앙도서관

* 주차요금 관련 사항은 <http://www.snu.ac.kr/campus/Gwanak/parking> 확인바랍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세미나>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

- * 일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후 2시
- * 장소 :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관정관 3층 양두석홀
- * 인원 : 약 100명
(대학 및 공공도서관 관장과 사서, 대학생, 대학원생 등 누구나)
- * 내용 : 서경식 교수*의 기조강연과 좌담회 진행





* 서경식(도쿄게이지이대학도서관 관장)
1951년 일본 고토에서 재일조선인 2세로 태어나 1974년 와세다대학 문학부 프랑스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도쿄게이지이대학 현대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2018년부터 대학 도서관장을 역임하고 있다. 1970년대 '재일조선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형 서승, 서준식의 석방과 한국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다. 이런 경험은 이후의 사색과 문필 활동, 강연으로 연결되었다. 주요 저서로 「교양, 모든 것의 시작」, 「나의 서양미술 순례」, 「디아스포라 기행」, 「나의 서양음악 순례」, 「내 서재 속 고전」 등이 있다. 일본에서 「소년의 눈물」로 1995년 일본 에세이스트클럽상을 받았고 「시대의 증언자 뿌리모 레비를 찾아서」로 2000년 마르코폴로상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실현과 소수자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 제6회 후광 김대중학술상을 수상했다.

시간	내용
14:00~14:10(10')	<인사말> - 서이종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관장
14:10~14:30(20')	<기조강연>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 - 서경식 교수 (도쿄게이지이대학도서관 관장)
14:30~15:30(60')	<좌담회> 서경식 교수와의 좌담 * 진행 :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 학계 : 정진수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대학 : 정재영 팀장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 공공 : 이정수 관장 (서울도서관 관장)
15:30~16:00(30')	<질의응답>

※ 시간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Korean Library Association

교양교육의 위기와 도서관의 역할

이 글은 2018년 12월 1일 일본의 구니타치음악대학(国立音楽大学)에서 개최된 TAC FD¹심포지엄
기조강연 내용을 가필한 것이다.



서경식²

도쿄게이지다이대학 도서관 관장
kysuh2@yahoo.co.jp

위기에 처한 대학도서관

도서관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도서관적 시간’을 ‘신자유주의적 시간’이 잠식하고 있다. 이를 막을 방도는 과연 있는가?

위기는 크게 두 방향에서 닥쳐오고 있다. 첫째, 사회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서문화의 쇠퇴다. 다양한 이유에서 이러한 쇠퇴가 시작되었겠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한 검색 기능 보급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사과의 절차를 생략하고 주어진 결론에 손쉽게 도달하는 경향을 조장하고 있다.

둘째, 문화와 교육의 영역까지 잠식하고 있는 ‘비용 대비 효과’라는 이익중심주의 발상이다. 일본의 대학도서관은 경비 절감을 위해 전담 사서를 줄이고 자료 수집과 도서관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지방의 대학도서관에서 ‘공간 부족’을 이유로 3만여 권의 장서를 소각 처분한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 책들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인간들도 불태울 것이라는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의 시구는 나치에 의해 증명되었다. 지금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도서관의 사명은 보편적인 관점을 지키고 인류의 지성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 가치는 하나의 인간, 기업, 정권의 수명 등을 훨씬 뛰어넘는 척도로만 헤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영국 망명 중 영국국립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집필했다. 이는 마르크스 개인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도서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기에 영국국립도서관의 업적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정치사상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인류의 거대한 지적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 행위의 가치를 단기적인 척도로는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

1 도쿄에 있는 6개 대학도서관의 네트워크. 구니타치음악대학(国立音楽大学), 국제기독교대학(国際基督教大学), 쓰다주쿠대학(津田塾大学), 도쿄 외국어대학(東京外国語大学), 도쿄게이지다이대학(東京経済大学), 무사시노미술대학(武蔵野美術大学)이 소속되어 있음.

2 서경식(徐京植) 1951년 재일조선인 2세로 일본 교토시에서 출생. 도쿄게이지다이대학에서 ‘인권론’, ‘예술학’ 등을 담당. 2018년부터 도서관장 역임. 주요 저서: 『교양, 모든 것의 시작』(서경식, 가토 슈이치, 노마 필드 공저), 『나의 서양미술 순례』, 『소년의 눈물』, 『디아스포라 기행』, 『시대의 증언자 브리모 레비를 찾아서』, 『나의 서양음악 순례』, 『내 서재 속 고전』, 『시의 힘』,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 등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의 의의

도쿄게이지다이대학은 2003년 7월 12일 세계적인 지식인 노마 필드(Norma Field) 선생(시카고대학 교수, 일본문학 전공)과 가토 슈이치(加藤周一) 선생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양』의 재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필드 선생은 시카고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강연을 했다(『교육의 목적』, 『할머니의 나라』, 『미스즈쇼보』, 2000 수록).

〈리버럴(Liberal)이라는 단어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중략) 원래 '자유인(Free man)'에게 어울리는 '학예(Art)' 및 '학문(Science)'적 성향을 지칭하는 통칭어인데, 노예적 또는 기계적이라는 의미와 반대로 쓰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신사에게 걸맞은'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적합하거나 어울리는 상태, 일, 직업을 설명하는 용법으로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³

〈최근 우리는 법 앞에서는 누구나(여자일지라도) '자유인'이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양교육을 배울 자유를 가지며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이 된다. 즉, 독립된, 나아가 자유로운 인격이 된다고 보며 일반교양(Liberal) 교육의 추구는 외적인 조건과 목표로부터 모든 면에서의 자유를 내포한다. 즉, 배우는 자는 오직 배움을 위해 그 자체에 가치가 있을 만한 학과(내용과 과정)를 배우고자 하는 자유로운 인격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유를 육성(cultivate)한다.〉

〈당신이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되든 간에 (중략) 그리고 리버럴이라는 말의 근대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는 넓은 마음, 정통파적 신념에 얽매이지 않은 것, 따라서 긍정적인 것 등 대학이라는 교육기관과 연결되어 있음에 긍지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특징이다.〉

가토 슈이치(加藤周一) 선생은 특별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교양이란 무엇인가』, 서경식 외, 『교양의 재생을 위하여』, 가계쇼보, 2005 수록).

〈가령 고성능 자동차가 개발되면 운전은 점점 손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휴일에 자동차를 타고 놀러 갈 때 누가 어떻게 목적지를 결정해야 할까? 이는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기술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경제적인 번영을 창출할 수는 있지만 이는 단순히 수단에 지나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가장 극적인 선택은 평화 아니면 전쟁이겠지만 이 역시 기술 그 자체로부터는 얻어낼 수 없다.〉

〈교양의 재생은 사회에도 개인에게도 궁극적인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지 그 근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양이다.〉

〈신민이 아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책임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만드는 것이고, 민주주의적 시민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자유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무엇보다 문예와 예술 속에서 양성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상상력은 물질적인 과학에서는 양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문학, 예술의 세계에는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강연회는 2003년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뜻을 같이한 나라들이 연합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직후에 개최되었다.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 세계와 일본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더 평화롭고 안전해졌는가? 우리 앞에는 지금 눈물을 흘리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로힝야족과 같은 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반지성주의'의 발호

(일본의)문부과학성은 2015년 6월 당면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며 일본 전국의 국립대학에 '교원양성계열, 인문사회과학계열 학부의 폐지 및 전환'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비난이 쏟아지자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요구'란 신자유주의체제 지배층의 '요구'인 걸까?

3 서경식 외, 이목 역, 『교양, 모든 것의 시작』, 노마드북스, 2007. P.27. 번역된 내용을 수록함.

이대로라면 젊은이들은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등에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타인과의 대화하는 힘을 기르지 못한 채 본인의 권리를 지킬 방법도 모르는 어른이 된다.

과거 프랑스 사상전문가 와타나베 가즈오(渡辺一夫) 선생은 패전 경험을 바탕으로 ‘광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기계화·야만화’에 전력을 다해 대항해야 한다고 술회했다. 『광기에 관해』 그러나 와타나베 선생의 이성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계화·야만화’ 과정은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학교육에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부정이라는 위기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현대사회에서 ‘반지성주의’라는 괴물이 날뛰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혐오표현, 차별주의적, 배타주의적, 호전적 언사들이 넘쳐나고 오히려 대중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 박차를 가하고 인간의 단편화를 심화하는 요인은 컴퓨터와 SNS에 대한 의존이다. 예전에 앞에서 말한 가토 슈이치 선생 강연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한 적이 있다. 그러자 한 학생이 태평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여행지를 선택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모르시나요?”

마음을 가라앉힌 후 “자네는 그런 여행에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학생은 의아한 표정으로 “귀찮지 않은데 좋지 않나요?”라고 답한 적이 있다.

인간 각각 여가를 보내는 방법, 인생의 목표, 삶의 의미까지도 인간을 대신하여 컴퓨터가 지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이를 의심없이, 오히려 그것에 의존하며 매 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단지 사고를 멈춘 것만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과 같은 더욱 근원적인 욕망까지도 지배되는 것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책도 별로 읽지 않고 의문이 생기면 곧장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 다소 긴 문장을 읽거나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스마트폰 문자 길이의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고도 표현도 단순하다. 대학 강의 중에도 사고와 논리 전개 과정의 공유를 지루하게 여겨 빨리 결론을 듣고 싶어 짜증을 낸다.

이렇듯 인간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파괴되었다. 인간이 단편화된 것이다. 인간의 단편화는 상대방을 그 속성에 따라 단정짓고(즉, 차별) 국가에 대한 비판 없이 동일화되어 타인에 대한 일률적 적대시(즉, 전쟁)로 이어진다.

도서관이 봉사하는 대상은 한 대학의 이익도 아니고, 한 국가의 이익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보편적 가치다. 인간의 단편화에 대항하여 교양교육을 지키고 육성하는 것은 곧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도서관과 교양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도서관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과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다. 모든 대학교 직원과 도서관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적 시간’의 회복

독서문화와 교양교육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신자유주의적 시간’ 감각이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수치화되거나 이익으로 환산된) 눈 앞의 성과만을 서로 겨루는 시간 감각은 인간의 기계화에는 유용하지만 지성 함양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어가 특별한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하게 찬 책들을 바라볼 때, 책을 집어든 순간의 무게감, 종지와 잉크의 냄새, 옛 선인과 외국인 등 낯선 저자의 이름과 경력을 접했을 때의 경외감, 책에 쏟아 부어진 방대한 지적 연구와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어느 정도 깊고 넓은지를 상상하고 그 일부분이라도 접해보고 싶다는 겸허한 동경심... 이 역시 중요한 독서의 즐거움이다.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교직원에게 의해 주어진 해답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물을 더 넓은 범위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로 이어지면서 ‘자유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기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장소이자 ‘자유로운 인격’ 형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거점도 도서관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관용적인 ‘도서관적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 각 대학도서관의 역량과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혜를 모아 같은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여 독서문화의 활성화, 나아가 교양교육의 재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의 목표를 위해 대학도서관이 검토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학생과 도서관 사이의 ‘문턱’을 되도록 낮춰야 한다.
- 도서관에서의 세미나 등 수업과 다양하게 연계한다.
- 다른 대학의 수업, 도서관과 폭넓게 연계한다.
- 귀중한 소장자료를 ‘재발견’, ‘재평가’하고 이를 널리 사회에 공유한다. ㉔